

日本資本主義研究*

— 4개의 論點을 중심으로 —

柴 垣 和 夫**

<目 次>

- I. 序
- II. 「日本資本主義論爭」과 宇野經濟學
- III. 「戰後改革」의 평가와 現代資本主義論
- IV. 日本經濟의 고도성장을 중심으로
- V. 소위 日本의 經營과 「文化」를 중심으로

I. 序

현재 日本의 經濟學界에서는 크게 나누어 新古典派로부터 케인즈學派를 포함한 近代經濟學의 흐름과 마르크스經濟學의 흐름이라는 二大潮流가 존재하고 있다. 제 2 차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중반까지는 마르크스학파가 우세하였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近代經濟學派가 급속히 대두하여, 양자가 共存・對抗하고 부분적으로는 서로 浸透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理論研究와 經濟史研究까지도 포함해서 양자의 比重은 均衡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본 논문의 主題인 日本經濟의 現象分析의 分野에 한하면 最近 近代經濟學派의 활약이 더욱 활발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로 마르크스經濟學派의 成果를 中心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우선, 같은 마르크스學派라고 하더라도 日本의 마르크스학파中에는 一近代經濟學派中에 케인즈학파와 供給經濟學, 통화주의자 등의 흐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흐름이 있다. 곧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第 2 次世界大戰前에는 「講座派」와 「勞農派」의 二大潮流가 있었지만, 戰後에는 각각이 몇 개의 支流를 이루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그 중 戰後에 有力한 學派를 形成하였던 것으로, 창시자인 宇野弘藏(前 東京大學 教授, 1899~1977)의 이름을 딴 「宇野學派」가 있다. 실은 필자도 「宇野學派」의 一員이다. 이하의 서술은 「宇野學

* 本論文은 1987年 12月 8日 本研究所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움: 日本經濟研究」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 중의 하나이다.

** 東京大學 教授

派]의 눈을 통해서 본 廣義의 마르크스學派의 日本資本主義研究에 대한 評價이다. 따라서 本論에 들어가기 전에, 「宇野學派」를 여타의 마르크스학과로부터 區別할 수 있는 현저한 特質에 대해서 다소 언급하려 한다.

그것은, 社會主義 또는 共產主義를 주장하는 世界觀 혹은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主義와 그 이데올로기의 基礎인 學問 내지 科學으로서의 마르크스의 經濟學說을 準별하는 것이다. 일찌기 英겔스가 『空想에서 科學으로의 社會主義의 發展』중에서, 마르크스主義에 의해서 社會主義는 科學으로 되었다고 서술한 이래, 마르크스主義 그것이 科學이라는 理解가 마르크스主義者사이에서 支配的인 것으로 되었다. 그 결과 마르크스主義 政黨의 綱領과 지도자의 말이 그대로 科學的 眞理가 되고 絶對化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宇野는, 그것은 科學과 이데올로기를 混同하고 學問的 研究과 政治的 實踐을 混同하는 오류이다라고 하면서, 學問으로서 마르크스의 經濟學說은 研究者個人的 이데올로기나 政治的 立場과는 無關하게 論理的 整合성과 實證的 뒷받침이라는 학문적 절차에 의해서 그 當否가 檢討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宇野自身이 마르크스의 『資本論』에서 論證이 不可能한 이데올로기적 主張을 排除하고 『資本論』을 經濟學原理論으로 純化시키고 동시에 獨特한 經濟學體系, 즉 「原理論」·「(發展)段階論」·「現狀分析論」으로 이루어지는 經濟學의 시스템을 完成하였다.

덧붙여 말하면, 宇野經濟學의 全體系는 岩波書店이 刊行한 『宇野弘藏著作集』全10卷, 別卷 1(1973~1974)에 잘 드러나 있으며, 간결한 解説로서는 大內秀明, 鎌倉孝夫, 林健久, 佐伯尙美的 『宇野弘藏—著作と思想』(有斐閣, 1979)가 있고, 또 柴垣和夫의 『社會科學의 論理』(東京大學 出版會, 1979)에서도 宇野經濟學을 설명하고 있다. 또 근년에 이르러 歐美에서도 宇野經濟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關根友彦教授에 의해서 宇野弘藏의 『經濟原論』이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978)라는 책으로 英譯되어 Harvester Press에서 出版되기도 하였다. 이것외에 영어문헌으로, Makoto Itoh의 *Value and Crisis*(Monthly Review Press, 1980)이 있고, 歐美人이 직접 쓴 것으로는, Robert Albritton의 *A Japanese Reconstruction of Marxist Theory*(St. Martin's Press)가 있다.

이상을 序論으로 해서 이제 本主題인 마르크스學派에 의한 日本資本主義研究에 대해서 다음 4가지의 論點, 즉 첫째 第2次 世界大戰 以前の 日本資本主義의 特殊性을 둘러싼 「日本資本主義論爭」에 대해서, 둘째 戰後 美國의 占領下에서 實施된 「戰後改革」의 評價에 대해서, 셋째 1950年代 중반부터 1973年の 石油危機까지 계속된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의 諸原因에 대해서, 넷째 高度成長의 過程에서 形成되었고 石油危機後에 국제적으로 注目을 集中

시켰던 소위 日本的 經營과 함께 日本的 勞使關係의 特質에 대해서 등을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日本資本主義論爭」과 宇野經濟學

戰前의 日本資本主義의 性格把握을 둘러싼 최초의 論爭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전반에 걸쳐서 벌어진 「日本資本主義論爭」이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日本資本主義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傳統的·舊社會的 諸要素, 즉 封建的 내지는 絕對主義的으로 보이는 諸要素를 本質的으로도 그러한 것으로 理解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近代社會에 남아있는 단순한 遺制로서 理解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같은 問題가 提起된 배후에는 사실 당시의 社會主義運動의 路線을 둘러싼 戰略論爭이 있었지만, 그 점은 學問上의 問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前者의 입장, 즉 日本資本主義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傳統的·舊社會的 諸要素를 本質的으로도 封建的·絕對主義的 性格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1932年에서 1933年에 걸쳐서 岩波書店에서 刊行된 『日本資本主義發達史講座』(全 7卷)에 結集되었기 때문에 「講座派」라고 불리워지고, 後者의 입장, 즉 日本은 本質的으로 近代社會이고, 傳統的·舊社會的 諸要素는 멀지않아 해소되어 갈 遺制에 불과하다고 理解하는 사람들은 當初 『勞農』(1927年創刊)이라는 잡지를 무대로 論陣을 펼쳤기 때문에 「勞農派」라고 불리워졌다.

우선 가장 代表的인 論者와 그 主要著作을 살펴보면 「講座派」에서는 野呂榮太郎의 『日本資本主義發達史』, 山田盛太郎의 『日本資本主義分析』, 平野義太郎의 『日本資本主義社會の機構』 등이 있고, 「勞農派」에서는 櫛田民藏의 『農業問題』, 猪俣津南雄의 『農業問題入門』, 向坂逸郎의 『日本資本の諸問題』 등이 있다. 또 각각의 입장에서 論爭의 內容을 소개한 문헌으로서, 「講座派」측에는 內田穰吉의 『日本資本主義論爭』, 「勞農派」측에는 對馬忠行의 『日本資本主義論爭史論』이 있다. 두 권 모두 극히 黨派的 立場에서 쓰여졌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論爭의 具體的인 論點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幕末의 經濟段階의 評價, 明治維新의 性格, 地租改正의 本質, 天皇制國家의 性格, 淸日·露日戰爭의 性格, 農業에 있어서 地主·小作關係의 性格 등 극히 다양하였고, 문제영역이 經濟學의 범위를 넘어서 政治學과 歷史學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러가지 論點을 깊이 파고들면, 結局은 農業에 있어서 地主·小作關係의 性格如何라는 問題로 수렴하게 되고, 바로 이 論點은 정확히 經濟學

의 問題이다.

1868년 明治維新의 過程에서 舊封建領主인 大名의 土地에 對한 領有는 철폐되었지만, 江戸時代 後半期부터 農民層의 內部에서 形成된 地主·小作關係는 維持되었고, 그것은 그 後에도 家族經營에 의한 영세한 農業經營과 함께 日本農業을 특징지우는 要素로 되어왔다. 時期에 따라 성쇠는 있었지만 地主·小作關係에 포섭된 農民은, 절정기에는 全農民의 約半을 차지했고, 또 小作地가 全農地의 半을 차지하였다. 小作地의 小作料는 화폐가 아니라 現物로서 收穫의 절반정도였고, 또 地主와 小作人과의 사이에는 意識의 面을 포함해서 封建的이라고 말할 수 있는 舊慣行이 두드러지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農業에 있어서의 地主制를 「半封建的 土地所有」로서, 엄밀하게는 「經濟外的 強制」에 기초를 둔 封建的 本質을 지니는 것으로 認識하였던 것이 「講座派」였다. 「講座派」의 見解에 따르면, 明治維新은 「封建的 土地所有」를 철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조아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고, 明治憲法에 의해서 確立된 專制的 天皇制國家는 資本家階級 및 「半封建的 土地所有」를 기초로 하는 地主階級에 의해 떠받쳐진 絕對王制(absolute monarchy)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講座派」의 認識을 체계화하였다고 일컬어지는 山田盛太郎의 『日本資本主義分析』에 따르면 「半封建的 土地所有」는 「半農奴的 零細農耕」과 相互規定的 關係를 가지고, 日本資本主義의 「基底」를 이루는 것으로 되고, 더우기 전술한 平野義太郎의 『日本資本主義社會の機構』에서의 보다 솔직한 表現에 따르면, 日本資本主義는 「封建制위에서 있는 資本主義」라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 勞農派는 다음과 같이 批判하였다. 무릇 資本主義는 封建的 土地所有의 解體를 前提로 해서 成立하는 것이므로, 封建制를 「基底」로 해서 成立된 資本主義를 생각하는 自體가 모순이다. 明治維新後까지 남아있던 農業에 있어서의 地主제도 地租改正에 의해 法認된 近代的 土地所有를 기초로 해서 成立하였던 것이므로, 그것은 農業에 있어서의 資本家的 經營의 形成發展과 함께, 멀지않아 資本家的 土地所有로 전환할 것이다. 地主·小作關係에서 小作料가 高율이라는 것은 경지를 구하는 農民들의 競爭에 의한 결과이지 「經濟外的 強制」에 의한 것은 아니며 또 現物에 의한 支拂도 사실상 農民의 관념속에서는 貨幣化한 것이다. 意識과 慣習의 面에서 封建的 諸要素는 舊社會로부터의 遺制에 불과하고, 過渡期的인 것으로서 곧 消滅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講座派」의 理論에는 「發展」이 없다는 것을 예리하게 批判하였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對立을 보였던 論爭에 있어서 理論적으로 어느 쪽이 옳바른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상대적이지만 「勞農派」쪽이라고 생각한다. 「講座派」는 자신들의 주장의 核

心を 이루는「半封建的土地所有」의 存在를 마지막까지도 論證도, 實證도 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本質적으로 封建的인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地主・小作關係가 「經濟外的 強制」로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그 시도는 모두 失敗하였다. 이는 곧 明治維新과 天皇制國家의 評價에 대한 「講座派」的 理解가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勞農派」가 올바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勞農派」는 資本主義는 封建的 土地所有의 否定위에 成立하기 때문에 後者를 「基底」로 하는 資本主義는 있을 수 없다는 理論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취했지만, 그 以上으로 日本資本主義의 特殊性의 解明이라는 點에서는 거의 積極的인 論議를 展開하지 않았다. 封建的으로도 볼 수 있는 地主・小作關係에 대해서, 그것은 遺制에 불과하고 따라서 資本主義의 發展과 함께 解消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고 또 天皇制에 대해서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부르조아 권력이라고 주장할 뿐 그것이 왜 絶對王制로도 볼 수 있는 專制的 權力으로서 維持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積極的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요컨대 「勞農派」는 日本도 資本主義이다라는 一般性を 주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보통 「勞農派」는 「一般性」을 강조하였고 「講座派」는 「特殊性」을 강조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 現實感覺으로서 「講座派」的 認識方法이 상당히 「常識」에 들어맞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단지 그 「特殊性」을 封建制라는 概念으로 밀고 나가서 理解하였던 것에 理論的인 無理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勞農派」는 「特殊性」도 점차 「一般性」속에서 解消되어갈 것이라고 하는 理解에 머물고, 그 結果 日本資本主義分析으로서 그 內容이 거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그들이 資本主義의 發展과 함께 形成될 것이라고 豫想하였던 資本家의 農業經營과 資本家의 土地所有는 今일에 이르기까지 아직 形成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論爭은 平行線을 걸다가, 中日戰爭이 시작될 무렵부터 정부의 社會科學에 대한 강한 彈壓에 의해서 中斷되었고 이후 第2次 世界大戰의 終了 후에 再開되었지만, 1950年代에 와서야 비로소 論爭을 根本적으로 解決하는 有力한 經濟學의 方法이 登場하였다. 그것이 앞에서 간단히 紹介하였던 宇野經濟學이다. 그러면 宇野經濟學은 어떻게 이 論爭을 해결로 이끌 수 있었는가? 그 點을 明確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宇野經濟學體系의 內容에 대해서 說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할 것도 없이, 宇野經濟學은 그 基礎를 마르크스 經濟學 즉 『資本論』에 의거하고 있지만, 『資本論』의 一言半句도 金科玉條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 不明確, 不充分한 것을 明確히 하고, 때로는 그 誤謬를 바로잡음으로써, 다른 마르크스學派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한 特性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資本論』의 課

題는 마르크스에 의하면 「近代社會의 經濟的 運動法則」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만, 宇野에 의하면, 이 「近代社會의 經濟的 運動法則」이라는 것이 마르크스 자신에 있어서 서로 다른 2가지의 意味로 사용되는 애매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는 한편으로 그것을 「純粹한 資本主義社會」 즉 資本家와 土地所有者와 勞動者의 3大階級단으로 이루어지는 「實驗室」의 인 資本主義社會 속에서 반복되는 모든 순환적인 法則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것을 資本主義의 生成・發展・沒落이라는 歷史的 展開를 다루는 歷史法則으로서도 理解하고 있다. 從來의 마르크스經濟學者들은 이것을 마르크스에 의한 「論理와 歷史의 統一」로서 安易하게 해석하여 왔지만, 宇野는 이 兩者를 明確하게 區別하고, 事實上 『資本論』 서술의 主要部分인 前者의 側面을 經濟學的 『原理論』으로 純化시키고, 後者の 側面을 「原理論」과는 다른 차원에서 資本主義의 世界史的인 發生・發展・成熟의 諸段階의 特質을 解明하는 「(發展)段階論」으로 위치지운다. 그리고 一國의 經濟와 世界經濟의 具體的인 分析은 「原理論」과 「段階論」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經濟學的 最終目的인 그 次元을 「現狀分析論」으로 이룸붙였다.

이상의 說明에서 명확하게 된 것처럼, 宇野經濟學的 獨自性은 資本主義를 說明하는 一般理論인 「原理論」과 「現狀分析論」의 사이에 「段階論」이라는 媒介項을 設定한 점에 있다. 이 「段階論」의 必要性은 宇野에 의하면, 資本主義의 世界史的인 發展이 英國을 中心으로 한 17~18세기의 重商主義段階, 그 以後 19세기중엽까지 역시 英國을 中心으로 하는 自由主義段階를 거쳐서, 19세기말 以後 독일의 擡頭에 의한 帝國主義段階가 開幕된 것에 의해서 要請되는 것이다. 즉 첫째, 自由主義段階까지의 資本主義의 發展은 英國에서 典型的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原理論」이 想定한 「純粹한 資本主義社會」에 接近하는 傾向을 나타내었던 것에 대해서, 帝國主義段階에 들어오면서 自由競爭이 部分的으로 否定되고, 獨占이 成立하며, 小農經營이 解體되지 않고 또 新中間層이 擡頭하는 등 階級關係가 복잡화되고, 일반적으로 資本主義로서 「不純化」되어가는 傾向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와 같은 資本主義의 自由主義段階에서 帝國主義段階로의 移行이 先進國인 英國의 發展의 延長線上에서 생겼던 것이 아니라 後進國이던 독일이 英國을 「따라잡고 추월하는 過程」 속에서 獨逸의 主導下에서 생겨났던 것이고 위에서 지적하였던 資本主義로서의 「不純化」도 獨逸帝國主義에서 典型的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經過는 마르크스가 『資本論』의 序文에서 想定하였던 「産業적으로 發展한 나라 (英國을 가리킴—引用者)는 産業적으로 뒤쳐진 나라(獨逸을 가리킴)의 未來를 보여준다.」라는 전망, 바꾸어 말하면 先進國이든 後進國이든 資本主義가 發展하면 할수록 「純粹한 資

本主義]에 가깝게 된다는 展望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마르크스는 帝國主義段階의 到來를 알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부득이했지만 이 마르크스의 展望과 現實의 推移간의 괴리는 마르크스以後 마르크스主義者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서 獨逸社會民主黨의 내부에 이른바 「修正主義論爭」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이 論爭中에서 帝國主義時代의 資本主義에 대한 理論的 分析을 시도한 저작으로서 힐퍼딩(R. Hilferding)의 『金融資本論』과 레닌의 『帝國主義論』이 있으나 이들 저작에 있어서도 각각 『資本論』과의 관련성이 반드시 명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宇野는 上述한 歷史的 經過와 學說史의 檢討를 통하여 앞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資本主義의 「(發展)段階論」을 構成하고 重商主義・自由主義・帝國主義라는 政策體系의 變遷에 의해서 특징지워진 資本主義의 生成・發展・成熟의 諸段階를, 각각 段階를 典型的으로 代表하는 나라의 代表的인 產業에 成立하는 支配的 資本의 蓄積樣式을 통해 설명하였다. 부연하자면 各段階의 支配的 資本이란 重商主義段階에서는 英國의 手工業의 羊毛工業을 背景으로 한 商人資本이고, 自由主義段階에서는 產業革命後의 英國의 機械制 綿工業에서 成立하였던 個人企業形態에 의한 產業資本이고, 帝國主義段階에서는 獨逸의 鐵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重工業을 무대로서 株式會社制度를 基礎로 成立하였던 金融資本이 그것이다(宇野, 『經濟政策論』 參照).

그러면 宇野經濟學自體의 解說은 이 정도로 그치고, 이 學說이 어떻게 日本資本主義論爭을 解決하였는가라는 當初의 問題로 되돌아가기로 한다. 우선 宇野는 자신의 「段階論」에서도 출된 두가지 점, 첫째는 後發國 獨逸의 資本主義化는 先進國 英國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점, 둘째는 그 結果로서 생겨난 帝國主義段階의 資本主義는 金融資本의 蓄積樣式인 까닭에 資本主義로서는 「不純化」하는 傾向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즉 日本은 獨逸보다 12년이나 뒤늦게 近代化를 시작한 後發資本主義國이었다. 또 日本에서 產業資本의 成立에 의해 資本主義가 일단 確立되었다고 하는 1900年경은, 世界史的으로는 帝國主義의 本格的인 開幕의 時期이고, 그 때문에 日本에서는 帝國主義로의 移行이 資本主義의 確立과 동시에 병행되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입각해 볼 때, 「講座派」가 논증 및 실증이 불가능한 「半封建的 土地所有」로 說明하였던 地主・小作關係를 宇野經濟學에서는 日本資本主義의 後發性내지 後進性으로 說明할 수 있다. 또 「勞農派」가 그 形成을 예상하였던 資本家的 農業經營이 現實에서 成立하지 않았던 理由도 宇野經濟學에서는 帝國主義段階의 金融資本의 論理로부터 說明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視角에서 論爭을 총괄한 문헌으로서는 大內力の 『日本經濟論』, 日高普 外, 『日本のマルクス經濟學—その歴史と論理』, 佐伯尙美, 柴垣和夫 編의 『日本經濟研究入門』 등이 있고 또 이런 視角에서 明治維新期 이후의 日本資本

主義發達史를 서술한 것으로서는 榊西光速, 大島清, 加藤俊彦, 大內力の『シリーズ・日本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全13卷이 있다. 英語문헌으로는 最近 論爭을 當時 日本資本主義의 諸問題와 關聯지어서 分析한 Germaine A. Hoston의 大著 *Marxism and the Crisis of Development in Prewar Japan*이 刊行되어 있다.

그리고 주로 戰前의 日本資本主義를 對象으로 한 廣의의 「宇野學派」학자들의 各論的 研究로서는 大內力の『日本資本主義の農業問題』, 大島清의『日本恐慌史論』, 加藤俊彦의『本邦銀行史論』, 佐伯尙美의『日本農業金融史論』, 林健久의『日本における租稅國家の成立』, 柴垣和夫의『日本金融資本分析』, 志村嘉一の『日本資本市場分析』, 兵藤釗의『日本における勞資關係の展開』, 橋本壽郎의『大恐慌期の日本資本主義』 등이 있다.

이상으로 「日本資本主義論爭」에 대한 서술은 마치고 「戰後改革」의 평가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기로 한다.

III. 「戰後改革」의 評價와 現代資本主義論

日本은 第2次世界大戰에서 패배한 후 1945年 9月에서 1952年 4月까지 事實上 聯合國인 美國의 占領下에 있었다. 그리고 占領軍의 주도 하에서, 日本의 非軍事化와 民主化를 目標로 政治・經濟・司法・社會 등의 모든 分野에 걸쳐서 制度上的 改革이 實施되었다. 그 내용을 열거해 보면 絕對主義的으로도 볼 수 있는 明治憲法의 改正을 통한 國民主權・基本的人權・平和主義에 立脚한 新憲法의 制定을 필두로, 立法・行政・司法制度의 改革, 民法改正과 家族制度의 改革, 教育制度의 改革, 그리고 經濟面에서는, 財閥解體・經濟力集中排除에 의한 獨占禁止法의 制定, 農地改革과 農地法의 制定, 勞動基本權과 社會保障制度의 確立, 財政・金融制度의 改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諸改革 각각의 具體的 內容과 評價에 대해서는, 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의 共同研究의 成果인 同研究所編, 『戰後改革』全6卷을 참고해 주길 바라며 여기에서는 단지 經濟面에서의 改革을 中心으로, 戰後改革을 하나의 全體로서 把握하는 경우에 그것을 어떠한 歷史的 意義를 가지는 것으로서 評價할 것인가 하는 問題만을 다루기로 한다.

이 問題에 대해서 最初의 답을 하였던 것은 1953년부터 刊行되기 시작한 『日本資本主義講座』(全10卷, 岩波書店版)의 제1권이였다. 그러나 이 評價는 이 「講座」를 간행했던 當時의 敎條的 左翼이 지녔던 그릇된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規定당하여서 改革이 가져왔던 現實의 變化를 거의 無視한 채 개혁이 美帝國主義에 의한 日本經濟의 植民地的 從屬의 手段

이 되었다는 點만을 強調하는 등 극히 現實에서 유리된 內容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이 評價는 現實의 推移에 의해서 破綻을 면치 못하였다. 그 뒤에 有力하게 제기되었던 것이 戰前의 「講座派」의 認識의 延長線上에 입각한 戰後改革에 의한 「半封建制」 및 기타 舊制度의 廢絶說 즉 戰後改革=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說이다. 이는 戰前以來 「講座派」의 代表的 學者였던 山田盛太郎이 主唱者이고 그의 論文 「農地改革의 歷史的意義」는 東京大學 經濟學部 創立三十周年 記念論文集 第二卷 『戰後日本經濟의 諸問題』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理解는, 본래 講座派의 잘못된 認識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전과 마찬가지로 現實의 推移에 의해서 그 기반을 잃게 된다. 즉 山田에 의하면, 「이번 農地改革의 획기적인 意義는 (中略) 軍事的·半封建的 日本資本主義의 基底—半封建的 土地所有制—半隷農的 零細農耕—의 構成을 그 根源에서 再編하고, 日本農業을 本格的인 農業에로의 解放의 길을 열었다」고 한다. 다소 不明명한 이 引用文의 意味는 「半封建的 土地所有制」가 解體되면, 그것에 의해서 規定되었던 零細經營도 解體되고 「本格的인 農業」 다시 말하면 資本家的 農業에로의 길이 열린다는 意味이지만, 실제로 地主制는 解體되었어도 零細經營은 維持되고, 「本格的인 農業」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 戰後改革=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說은 革命의 主體로서 美占領軍을 想定하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이것도 占領後半期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占領政策의 轉換에 의한 이른바 「逆코스」의 評價와 관계된 것으로, 論理的 一貫性을 維持할 수 없었다. 더우기 이와 같은 戰後改革의 理解는 改革의 주도권을 占領軍이라는 日本에 있어서 外在的인 存在에서 구하는 것과 연관하여, 戰後改革을 사이에 두고 戰前과 戰後의 日本資本主義의 사이에는 質的인 「斷絶」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戰前·戰中의 時期에 이미 나타났던 戰後改革의 前史를 無視하고, 戰前·戰後의 「連續」의 측면을 輕視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舊「講座派系譜」에 입각한 理解에 대해서, 戰後改革을 이 時期의 資本主義의 性格, 즉 國家獨占資本主義와 관련시켜서 理解하고 評價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宇野學派」이다. 進술한 梶西 外, 『シリーズ·日本における資本主義發達』 중의 第10冊, 『日本資本主義의 没落』 V의 第5章 5節은, 占領政策 즉 戰後改革의 歷史的 意義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占領政策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美國의 世界政策의 一環으로서 遂行된 것이고, 그 의도는 日本을 美國陣營의 一角으로 위치지우려는 것이었지만, 우리들에 있어서 重要的 것은 그 政策을 관철하고 있는 國家獨占資本主義의 論理를 읽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단순히 美國側에서 본 占領政策이 國家獨占資本主義의 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中略) 오히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日本에 있어서, 占領政策이 그 資本主義를 國家獨占資本主義

體制下에서 復興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다. 혹은 보다 단적으로 언급한다면, 그것은 日本資本主義중에서 獨占資本에게 不合理한 것을 일거에 씻어내고, 國家獨占資本主義로서의 일본자본주의를 한층 緊密하고 安定性있는 體制로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共著者中의 一人인 大內力은 보다 솔직하게 「戰後改革을 밖으로부터 도입에 의한 改革으로 理解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日本의 國家獨占資本主義體制를 完成시키고, 혹은 성숙시키기 위해서 必要했던 改革으로 理解한다」라는 입장을 表明하였다.

여기에서 國家獨占資本主義라는 用語에 대해 부연해 둔다면 이 용어는 第一次世界大戰中에 國家의 經濟統制가 이루어졌던 資本主義에 대해서 레닌이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以後 마르크스經濟學에서는 近代資本主義와 區別되는 現代資本主義를 지칭하는 用語로서 사용하고 있다. 特히 近代와 區別되는 現代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을 그 本質的인 標識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論議가 있고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지만, 第1次世界大戰부터 兩次大戰사이의 大恐慌을 거쳐서 資本主義가 커다란 변모를 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는 國家의 經濟에 대한 역할이 증대하였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 近代經濟學 내지 非마르크스經濟學에 있어서도 「(公私)混合經濟體制」라는 用語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國家獨占資本主義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하였던 意味로서 現代資本主義와 同一한 意味로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宇野經濟學은 이 國家獨占資本主義論 즉 現代資本主義論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본래 宇野經濟學의 段階論에서는, 帝國主義段階의 規定을 힐퍼딩이 말한 「古典的 帝國主義」의 時期, 즉 第1次世界大戰까지의 時期로 하고 그 以後의 資本主義는 아직 段階規定을 할 수 없는 것으로 想定하여 왔다(宇野, 『經濟政策論』). 왜냐하면 宇野는 第1次世界大戰中에 러시아革命에 의해서 소련이라는 社會主義國이 登場한 以後에는 이미 資本主義가 資本主義의 論理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宇野自身은 그 內容을 적극적으로 展開하지 않았지만, 그 作業은 제일 먼저 大內力의 『國家獨占資本主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冊에도 수록되어져 있고 또 이 主題에 대한 그의 최초의 論文인 「國家獨占資本主義ノ一ト」는 영어로 번역되어 *Annals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No. 23에 수록되어 있다.

이 論文에서 大內力은 社會主義와 對抗關係에 서서 現代資本主義를 特徵지우는 가장 本質的인 點은, 財政 및 金融政策을 手段으로 하는 人爲的인 인플레이션政策에 의해서, 스스로 資本主義에 있어서 危機를 意味하는 恐慌과 그 結果 생기는 失業을 克服(1930年代) 혹은 회피하는 (第2次大戰後)점에 있으며 따라서 現代資本主義에로의 移行을 나타내는 標識

는 完全雇用을 目的으로 한 케인즈적 인플레이션政策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金本位制의 폐지를 통한 管理通貨制度로의 移行이다라고 主張하고 있다. 大內力의 이러한 國家獨占資本主義論은 그 後, 加藤榮一의 『ワイマル體制の經濟構造』와 馬場宏二의 『現代資本主義の透視』 등에 의해 現代資本主義에로의 社會的·政治的 側面에서의 접근이 補完되었고, 資本主義가 自己의 原理를 部分的으로 否定하면서 그 生存을 피하는 體制, 또 生存權과 勞動基本權을 認定함으로써 勞動者階級을 體制內化시키는 體制라는 表現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國家獨占資本主義를 兩大戰中間을 始點으로 잡고, 第2次大戰後에 先進國에서 확립되고 성숙하였던 이른바 「福祉國家」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日本에서는 世界恐慌後 1930年代의 이른바 高橋財政—이것은 케인즈政策의 선구라고도 評價되어지지만—에 의해 經濟面에서의 現代資本主義化에는 재빠르게 成功하였지만, 勞動者階級の 體制內化라는 社會的·政治的 側面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그 先驅形態를 가지고 美國의 뉴우딜을 거쳐서 戰後 福祉國家에 연결되는 形態를 취하지 않고, 나찌 독일과 이탈리아와 함께 파시즘의 形態를 취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大內力은 戰後改革을 經濟面에서의 現代資本主義化를 철저히 하는 것과 함께 社會的·政治的 側面에서의 現代資本主義化 즉, 福祉國家를 일거에 實現하기 위한 改革으로 파악한다. 실제로 憲法改正을 시작으로 해서 戰後改革이 창출해 낸 새로운 體制는, 近代化를 넘어서 現代的 性格을 가지는 것이었다. 公共의 福祉를 위한 財產權의 制限, 私的 獨占의 禁止, 生存權의 承認에 의한 社會保障의 權利化, 勞動3權의 承認, 男女平等權, 普通選舉權 등은 대부분이 1920年代의 바이마르 공화국과 1930年代의 美國 및 人民戰線政府下の 프랑스 등에 淵源을 가지는 것이다. 이들 諸課題는 日本에서도 1930年代以後 예를 들면 農地改革의 前史를 이루는 自作農創設政策의 추진과 약간의 社會政策立法 등 部分的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지만,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와 戰時經濟의 어려움때문에 극히 불철저하였다. 그것을 占領軍權力이라는 강력한 힘을 利用하여 일거에, 게다가 철저히 施行하였던 것이 戰後改革이다.

그런데 戰後改革을 이와 같은 現代 「福祉國家」의 制度적 틀을 만든 改革으로서만 理解한다면 그것과 改革의 基本的인 主體인 美占領軍의 意圖—그것은 통상 「非軍事化」와 「民主化」라고 理解된다—와의 關聯이 問題로 된다. 하지만 이 兩者間의 불일치는 宇野經濟學에 있어서 특별히 考慮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資本主義體制下에서, 政策主體의 主觀的 意圖와 그 結果가 불일치되는 것은 여러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필자는 前술한 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編, 『戰後改革』의 第7卷에 「財閥解體と集中排除」라는 題目的 論文을 집필하였는데(英譯, “Dissolution of Zaibatsu and De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nals of Institute of Social Science, No. 20), 이 論文에서 필자는 財閥解體가 그 과정에 서 占領軍이 당초에 意圖하였던 바와 멀어지고 結果적으로 日本의 獨占體制 내지 寡占體制를 現代資本主義에 적합한 形態로 合理化시키고 그 後의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을 가능케 한 하나의 條件을 만들었다는 해석을 행한 바가 있다.

以上은 주로 「宇野學派」의 視角에서 戰後改革을 問題로 삼았지만, 同一한 對象을 美國의 占領政策이라는 觀點에서 접근한 주로 政治學者에 의한 一連의 研究가 있다는 것을 參考하기 바란다. 그 代表的인 문헌을 들어보면, 大藏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終戰から講和まで』 중 3 「美國の對日占領政策」(秦郁彥執筆), 竹前榮治의 『戰後勞動改革・GHQ勞動政策史』, 坂本義和와 R.E. Weight編의 『日本占領の研究』 등이 있다.

IV.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을 중심으로

戰後 日本經濟는 1940年代後半의 混亂期後, 1950년에 발발한 韓國動亂에 기인하는 美國으로부터의 特需에 의해서 거의 戰前의 經濟水準을 回復하였다. 그러나 이 動亂분에 의한 經濟成長은, 그 主役이 石炭産業과 纖維産業 등 戰前의 中心産業으로—이후에 斜陽化하는 産業이라는 점에서 잘 나타나듯이—여전히 經濟復興的 性格이 强하였다. 技術革新과 産業構造의 變革을 수반한 本格的인 經濟의 高度成長은 1955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1973年 第1次 石油危機의 발생까지, 실로 19年間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물론이 사이에 도 短期的인 景氣變動의 起伏은 있었지만, 戰後 最大의 不況이라는 1964~1965年 不況에도 實質成長率이 4%나 되었고, 19年間을 통하여서 年平均 實質經濟成長率은 約 10%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長期에 걸친 經濟의 高度成長은 그때까지 資本主義歷史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고 經濟學의 常識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는 하지만, 이 때문에 高度成長의 「秘密」을 찾는 것이 經濟學者의 關心의 표적이 되었으며 특히 近代經濟學쪽에서 보다 活潑하게 論議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얻어진 成果중에는 宮崎義一の 『戰後日本の經濟機構』와 같은 마르크스경제학측에서도 높이 評價되는 저작이 있다. 이에 비해 마르크스學派의 高度成長에 대한 접근(approach)은 상당히 뒤 떨어져 있다. 그 原因의 하나는 마르크스學派에 一般的으로 存在하고 있던 現代資本主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미지 때문이다. 즉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學派는 現代資本主義를 國家獨占資本主義로 把握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마르크스경제학자들은 그것을 恒常的인 過剩資本과 過剩勞動力에 의해서 特徵지워지고, 本來的으로 低成長體質을 지

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의 持續이라는 現實에 直面해서 마르크스經濟學者가 안고있는 당혹감은 이러한 기존의 이미지와 現實과의 겹을 어떻게 메우는가라는 問題인 것이다.

그런데 이 問題에 처음으로 積極的인 하나의 解答을 주었던 것이 「宇野學派」인 大內力の 『日本經濟論』(上·下)이다. 그의 國家獨占資本主義論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그것이 「本來 低蓄積·低成長에 의한 均衡을 必要로 한다」라고 본 點에서는 그때까지의 마르크스學派와 共通된 認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日本의 高度成長에 관한 그의 說明은 그것이 國家獨占資本主義로서는 特殊 내지 異常한 것이고 이른바 例外的 現象이라는 認識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리고 日本의 異常性·例外性을 規定한 것으로서 「戰後性」과 「後進性」의 2개의 要因을 지적한다. 그 경우 「戰後性」이란 (1) 戰爭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기존投資의 철저한 파괴, (2) 農地改革, 勞動組合의 解放 등에 의한 國內市場의 擴大, (3) 財閥解體, 獨占資本의 再編成에 수반된 과도한 競爭的 體質, (4) 軍備의 縮小, 植民地의 喪失에 의한 生産的 投資의 擴大, (5) 世界市場의 순조로운 擴大 등이고, 또 「後進性」이란 (1) 새로운 技術과 새로운 産業의 海外로부터의 導入 (2) 二重構造에 수반된 저렴하고 풍부한 勞動力의 存在, (3) 獨占資本의 下請내지 外業部를 이루는 광범위한 中小企業의 存在, (4) 높은 저축율에 의한 풍부한 資金 등이다. 이와 같은 「戰後性」과 「後進性」의 內容을 확정된 위에서, 大內力은 이들 2개의 要因이 얽혀서 「종래의 日本經濟의 後進的인 特質이 經濟成長에 있어서는 매우 有效하게 作用하였다」라고 總括하고 있다. 역시 基本的으로 大內力과 同一한 理解를 가지면서도 高度成長의 必然性을 주로 戰後日本資本主義의 特殊한 資本蓄積의 패턴과 그것을 지지하는 特殊한 資金調達構造에 의해서 解明하는 논의로써 大島清과 榎本正敏의 『戰後日本の經濟過程—資本蓄積と景氣變動』이 있다.

그리고 大內力說이 日本의 高度成長을 現代資本主義에 있어서 例外的인 것으로 說明하였던 것에 대해서, 國家獨占資本主義의 低成長體質說을 批判하면서, 現代資本主義는 오히려 本質的으로 高成長體質을 가지며, 日本의 高度成長은 그것이 劇的 및 典型的으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主張을 제시하였던 것이 「構造改革派」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다. 이 學派는 『帝國主義의 終焉』을 著述하였던 스트레이치(Strachey)流의 이른바 「資本主義變貌說」과 그람시(Gramsci)로 代表되는 이탈리아 마르크스主義의 影響을 받아서 形成되었던 學派로 井汲卓一, 今井則義, 長州一二編의 『現代日本資本主義講座』와 正村公宏의 『現代日本經濟論』 등이 그들의 代表的인 저작이다. 이와 같은 理解는 그 後 「宇野學派」 내에도 침투하였다. 어떤 理由에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大內力說은 1950年代後半에서 1960年代

前半까지 「戰後性」과 「後進性」이 明確하게 存在하였던 時期의 分析으로부터 도출되었지만,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은 실제 「戰後性」과 「後進性」이 거의 없어졌다고 여겨지는 1960年代後半以後에도 持續되었으며 成長率은 오히려 증가하는 傾向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歐美諸國의 경우에도 第2次世界大戰後의 經濟成長率은 그 以前에 비해서 上昇하였다는 것이 明確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大內秀明의 『轉機に立つ日本資本主義』는 大內力의 國家獨占資本主義 低成長說을 批判하였고 이를 계기로 兩者사이에 論爭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더우기 最近에는 馬場宏二가 『富裕化と金融資本』에서 金融資本에는 宇野와 大內力이 생각하였던 것 以上으로 成長力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問題提起를 하고, 그 觀點에서 日本의 高度成長의 評價를 시도하였다.

이외에 高度成長期를 對象으로 하였던 마르크스學派의 研究를 열거하면, 舊 「講座派」의 系譜를 따르는 守屋典郎의 『戰後日本資本主義』, 「講座派」의 影響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結論에 있어서는 正村의 說과 매우 유사한 玉垣良典의 『日本資本主義構造分析序說』 등을 들 수 있다. 上記의 것 以外에 「宇野學派」의 研究에는 大內力編著의 『現代日本經濟論』, 遠藤湘吉의 『戰後日本の經濟と社會』, 武田隆夫, 林健久編의 『現代日本の財政金融』 I, II 등이 있고, 또 이에 관련된 필자의 研究로는 『日本資本主義의 論理』와 論文, 「産業構造의 變革」(前掲, 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編, 『戰後改革』 8 『改革後の日本經濟』에 수록), 編著 『世界のなかの日本資本主義』 등이 있다.

여기서 필자의 견해가운데서 하나의 論點을 간략하게 제시해 두기로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1955년부터 1973년까지 계속되었던 高度成長의 過程을, 1964年~1965年 不況을 境界로 前半과 後半으로 나누어서 理解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는 點이다. 總需要構成의 推移만을 볼 때, 民間設備投資主導型의 成長過程으로 一貫해서 理解하는 것도 可能하지만, 그 內容은 前半期에는 新·舊重化學工業의 移植新設이라는 이른바 投資의 外延的 擴大라는 性格이 강하고, 따라서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급속히 進展되었던 것에 대해서, 後半期의 産業構造는 規模의 巨大화와 省力化를 特徵으로 하는 內包的 擴大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또 前半期의 設備投資는 「投資가 投資를 부른다」라고 할 정도로, 文字 그대로 內需主導型 成長이 主役이었지만, 後半期의 設備投資는 輸出의 擴大에 자극받은 面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이 點은 國際環境의 變化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前半期은 外換管理에 의한 輸入規制에도 불구하고 經常收支는 赤字基調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 後半期에는 貿易의 自由化를 진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經常收支는 黒字基調로 크게 변화하였다. 시각을 社會的 側面에까지 擴張하면, 前半期까지는 階級鬭爭의 勞使紛爭이 社會問題의 中心이었지만, 後半

기로 들어오면 勞使關係는 매우 安定되고, 오히려 公害問題와 物價問題 또는 老人福祉와 같은 이른바 市民社會의 諸問題가 社會問題의 焦點으로 登場하였다.

이상에서 약간 例示하였던 것처럼 數字上으로 한결같이 볼 수 있는 19년간의 高度成長期도 內容의으로는 상당히 패턴이 다른 2개의 時期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바로 이러한 事實을 근거로 삼는 것은 이 사이에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日本의 위치가 변화하였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前半期는 第2次世界大戰後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즉 「核과 달러」의 힘에 기초한 미국의 패권하에서, 日本이 그것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또 그 적응을 통하여 자신의 成長을 實現하였던 時期였다. 그 점에서 이 時期는 그 前의 10년에 연결되는 面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後半期는 1960년경에 시작되었던 달러危機와 베트남戰爭에 의해 미국의 세력 약화가 진전되는 過程에서 日本이 그 過程에 便乘하여 경이로운 成長을 실현함과 同時に 그 成長을 통하여 미국의 세력약화를 가속화시키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붕괴에 一役을 맡았던 時期였다. 이는 現在에 닥치고 있는 미·일경제마찰의 발단이 이 時期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後半期는 高度成長終焉後의 時期, 즉 石油危機후 급일에 이르는 時期까지 연속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戰後 40년의 日本經濟를 볼 때, 日本의 國內經濟에 重點을 두고 보는 경우에 劃期는 高度成長의 起點과 終點인 1955년과 1973년으로 되지만, 日本經濟의 對外關係라는 측면에서 보는 경우에는, 1965년경을 境界로 해서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適應的 發展期와 그것에 대한 攪亂的 發展期로 大別할 수 있다. 以上 高度成長論에 관련해서 필자 자신의 接近을 서술하였다.

끝으로 高度成長期에 마르크스學派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論議로서, 高度成長論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 진행되었던 이른바 「自立·從屬論爭」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것은 日本이 美國에 對해서 어느 정도 從屬되어 있는가, 혹은 自立하고 있는가를 둘러싼 論爭이고 말할 것도 없이 日本의 社會黨과 共產黨의 戰略論爭과 연결되어 이루어졌다. 1952년 4월의 샌프란시스코平和條約과 함께 발효되었던 美·日安全保障條約下에서, 日本은 美國에 對해서 단순히 軍事的 從屬國인가, 그렇지 않으면 植民地的 從屬國인가라는 내용으로 이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이후 1960년에 安保條約이 改正되자 이번에는 日本이 帝國主義國家로서 自立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美國의 從屬國인가라는 내용으로 그 쟁점이 發展하였다. 쟁점을 評價하는 基準으로서, 본래는 第2次世界大戰後의 東西對立을 前提로 하였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하에서 先進資本主義 諸國間的 關係가 論理的으로 명확하게 될 必要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레닌의 「帝國主義論」이 그 基準으로 되었기 때문에, 學問

의으로는 成果가 없는 論爭이었다. 이 論爭史를 정리한 문헌으로서는 高內俊一의 『現代日本資本主義論爭』이 있다. 以上으로 高度成長期의 諸問題를 끝내고 「日本的 經營」이란 무엇인가라는 問題로 넘어가기로 한다.

V. 소위 日本的 經營과 「文化」를 중심으로

1973年 가을, 第一次石油危機에 의해서 日本經濟는 歐美先進諸國과 함께 격심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빠졌다. 그때까지의 經濟學教科書에도 없었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新現象을 어떻게 說明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經濟學者가 論爭하였고, 日本의 마르크스學派가운데에서도 活潑한 論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宇野學派」도 이 問題에 대해서 자신의 獨自의 恐慌論·景氣循環論을 援用하여서 적극적인 解明을 하였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 그 自體는 日本經濟論의 범위를 벗어나는 問題이므로, 여기에서는 그 內容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成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몇개의 문헌을 例示하기로 한다. 大內力의 『國家獨占資本主義·破綻の構造』, 加藤榮一의 「現代資本主義研究の動向」(佐伯尙美, 佐美光彦, 石川經夫編 『マルクス經濟學の現代的課題』에 수록), 高須賀義博의 『現代資本主義とインフレーション』 등이 있다.

그런데 石油危機에 의한 쇼크(shock)는 歐美諸國에 비해서 日本쪽이 상당히 컸지만, 그 쇼크로부터의 회복은 즉 스태그플레이션으로부터의 脫出은 日本이 가장 좋은 形態로 實現되었다. 強力한 總需要抑制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終息後, 輸出드라이브, 財政支出, 企業의 「減量經營」의 三位一體가 奏效하여 1974年 戰後 처음으로 마이너스成長에서 1976년에는 5%臺의 成長率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7~1978년에는 소위 하이테크産業을 무대로 새로운 技術革新을 이룩하고 그 힘을 이용하여 1979~1980년에 일어났던 第2次石油危機를 큰 어려움없이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이 過程은 다른 한편으로 世界市場에 있어서 日本의 비중(share)이 커지면서 貿易摩擦이 激化되는 過程이었다. 그 때문에 貿易摩擦과 關聯해서 한편으로는 對日非難이 높아져 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日本經濟의 良好한 展開가 國際적으로 높이 評價되었는데 예를 들어 하바드大學의 포겔教授의 *Japan is No. 1*이 國際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狀況도 생겼다. 그리고 당시의 日本經濟의 良好한 展開를 그 根底에서 떠받치는 것으로서, 소위 「日本的 經營」이 注目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마디로 日本的 經營이라고 말하면서도 意味하는 바와 重點을 두는 것은 論者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특히 이 問題에 대해서, 經濟學者들 뿐만 아니라 經營學者와 社會學

者 더우기 文化人類學者 등 많은 分野에서의 발언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래서 以下에서는 필자의 見解를 중심으로 日本的 經營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本來 日本的 經營이 注目되었던 것은 歐美諸國에 비해서 日本的 경우 勞動爭議가 적고 勞使關係가 매우 安定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勞働者의 勞動에 對한 모달이 높고 계획적 결근(absentism)도 거의 없으며 그 結果 勞使가 一體가 되는 企業經營이 실현되고, 그것이 日本製品의 강한 國際競爭力의 源泉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日本的 經營論이란 바로 日本的 經營을 成立시켰다고 여겨지는 特殊한 日本的인 諸要素를 抽出하고 그것을 어떻게 說明할 것인가라는 問題를 뜻한다. 이 特殊한 日本的인 諸要素로서는 終身雇傭·年功賃金·企業別組合 등의 소위 「三種의 神器」부터 集團主義的·平等主義的 人事管理과 從業員의 각 수준의 經營參加, 좀더 細部的인 것으로는 on the job training과 inhouse education, bottom-up의 意思決定方式, 企業의 外延的 關係에 있어서 廣範한 下請制와 系列關係 등 다양한 諸要素가 지적되었다.

問題는 이것들의 근거를 說明할 때에 종종 日本社會의 文化的 特性이 거론된다는 점이다. 물론 필자도 어떤 나라의 經濟現象과 經營現象을 說明할 때에 그것을 文化的 側面에서 說明하는 것이 완전히 無意味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日本的 경우에 이와 같은 說明方法이 너무 많고, 그 結果 經濟의 論理로 說明가능한 것까지도 文化를 원인으로 삼는 傾向이 있었다. 물론 현재 日本경제의 뛰어난 성과와 日本的 經營의 成功은 그것을 떠맡았던 製造業, 특히 自動車, 電氣, 電子, 精密機械 등의 量產型 組立機械工業에 있어서 이른바 日本的 經營의 特殊한 諸要素가 經濟적으로 매우 合理的이었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필자의 見解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日本的 文化가 아니라 日本經濟의 시스템, 특히 그 勞動市場과 企業의 資本構造의 特質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起源은 勞動市場에 대해서는 第1次世界大戰後의 時期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資本構造에 대해서는 戰後改革이 決定的인 劃期였다고 말할 수 있다.

勞動市場의 特質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광범위하고 깊은 內部勞動市場의 形成이고, 企業의 資本構造의 特質이란 바로 法人資本主義(corporate capitalism)를 말한다. 內部勞動市場에 대해서는 周知의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法人資本主義란 日本의 大企業에 있어서, 個人인 大株主는 例外的으로밖에 存在하지 않고 大株主는 거의 法人이라는 사실에서 연유된 용어이다. 三菱, 三井 등의 소위 企業集團은 그룹을 구성하는 法人企業이 相互 株式을 가지고 合作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資本構造下에서 法人株主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企業의 經營에 介入하지 않고, 企業經營은 從業員에서 昇進한 經營者

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通例이다. 이것은 소위 經營者支配의 가장 철저한 형태라고 말해도 좋다. 이러한 사실에서부터 현재 日本에는 資本家가 없다는 論議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內部勞動市場이든, 法人資本主義이든 둘다 經濟의 論理로써 그 成立을 解明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以上에서 서술한 것처럼 깊고 광범위한 內部勞動市場과 法人資本主義의 結合에 의해서 成立하였던 日本的 經營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性格을 나타낸다. 즉 日本的 經營은 그 內部構造에 있어서 共同體的 性格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소련과 중국과 같은 社會主義國家에서조차도 잘되지 않는 自主管理的 活力을 產出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活力이 어느 方向으로 향해지느냐를 살펴보면 그것은 資本으로서의 最大限의 利潤追求로 나타난다. 따라서 혹자는 이와 같은 日本企業의 存在形態를 「日本會社主義」라는 말로써 表現하였지만, 이것이 日本經濟의 強力한 根源인 同時에 격심한 貿易摩擦의 元兇이기도 하다.

이 점을 확인한 위에서 論議를 一步 進展시키면, 왜 이와 같은 「會社主義」라고도 表現되는 시스템이 日本에서는 開化하고 外國 즉 歐美에서는 충분히 成立하지 않았던 것인가 혹은 現在 現實化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스템을 歐美에 移轉(transfer)하는 경우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하는 問題가 생긴다. 이것도 文化的 차이때문이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지만, 이는 필자의 생각으로는 너무 安易한 얘기라고 생각된다. 필자의 見解로는 그것은 단순히 文化的 차이때문이 아니라 量產型 組立産業의 生産構造가 要求하는 새로운 經濟시스템의 形成에 있어서, 日本에서는 文化的 要因에 의한 抵抗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歐美諸國에서는 그 抵抗이 매우 강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어떤 社會 혹은 어떤 地域의 文化는 宗教를 필두로 해서 同族意識, 身分意識, 階級意識 등의 社會的 諸意識을 포함해서, 一般的으로 保守的 性格을 가진다. 그것에 대해서 經濟活動은 生産力의 發展에 수반하여 革新的인 性格을 가진다. 따라서 文化的 問題를 經濟와 연결지어 논할 때에는, 文化를 經濟的 革新에 대해서 肯定的이 아니라, 否定的으로 연결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어떤 文化가 經濟的 革新을 어떻게 可能하게 하는가」라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文化가 經濟的 革新을 어떻게 방해하는가」라는 형태의 問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問題提起에 입각해서 다시 日本的 經營에 있어서 經濟적으로 合理的인 日本的 特殊性의 文化的 근거를 묻는다면, 그것은 日本에는 經濟的 革新을 방해하는 文化가 희박하다고 좀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文化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역으로 歐美諸國의 경우는 強力하고 뿌리가 튼튼한 文化가 合理的인 經濟的 革新에 對해서 抵抗力이 되고 있다고 말해야 될 것이다.

방금 지적하였던 것처럼 日本社會에 있어서 文化의 희박성은 어디에서 由來하는가라는 問題가 남지만 이것에 答하는 것은 필자의 能力의 限界를 넘어서는 것이다.